

치안, 범법, 탈주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전후(前後)*

— 학병로망으로서의 『청춘극장』과 『아로운』—

김예림*

1. 식민지 청년의 삶의 상태와 ‘학병’이라는 장소
2. 전시 식민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편성과 학병의 위치
3. 학병로망의 구조와 의미코드들: 통치 장치와 도주
 - 3-1. 탈출과 도망병 되기
 - 3-2. 범/법과 존재론적 전환의 기술
4. 결론: 생략과 단절의 기억술

국문요약

이 논문은 일제말기 전시 통치하에서의 조선인 청년의 삶의 상태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총력전 병영제국의 생명 통치 장치와 더불어 생겨난 식민지 청년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학병’에 초점을 맞추었다. 더불어, 이들의 이야기가 해방 이후 어떻게 기록되고 대중적으로 소비되었는지를 규명하였다. 식민자가 벌이는 전쟁에 강제로 끌려나가기야 했던 학병은 1938년 이후에 등장한 중하층 출신 지원병 집단과는 다른 사회적 계층에 속했다. 고등교육 수혜자였던 학병이 전쟁, 민족, 국가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서 민족 수난과 국민국가 건설의 지평 한가운데에 자기를 위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고도의 리더러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학병은 민족의 우울과 환희를 압축하고 있는 푸른 상징이 되었다. 대중적인 학병 로망의 상상력 역시 이 틀을 공유하면서 후식민 집합기억과 대중적 감수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현운사의 『아로운』 3부작은 대중적인 학병 로망을 대표

* 이 논문은 2010년 하반기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년/청춘의 계보와 대중서사>(2010.10.2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통해 조언과 도움을 준 권보드래, 김지영 선생께 감사드립니다.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 교수.

하는 작품이다. 이들을 통해 식민지 엘리트 청년의 존재론은 후식민 문화상품의 주요한 컨텐츠로 자리매김되었고 대규모로 소비되었다. 두 텍스트는 모두 학병 탈출 모티프를 중요한 서사적 줄기로 삼고 있다. 탈출이란 제국의 전시 법질서와 치안을 흐트러뜨리는 범법 행위이다. 이 논문에서는 두 작품에 나타난 법과 범법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제국의 통치성, 식민지의 도주하는 에이전시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주제어: 청년, 학병, 학병도망, 『청춘극장』, 『이로운』3부작, 법질서, 범법, 도망병, 탈주)

1. 식민지 청년의 삶의 상태와 ‘학병’이라는 장소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일제말기 전시 통치하에서의 청년의 상태(stare)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총력전 병영제국의 생명통치 장치와 더불어 식민지에서 어떠한 청년 정체성이 출현했는가 그 핵심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이와 연결하고 있는 또다른 질문은 이 청년들에 관한 이야기가 해방 이후 어떻게 재구성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식민지의 특정한 기억이 대중적으로 재생산되고 통용되는 어떤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탐색을 위해 특히 학병이라는 정치적 장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물론, 학병은 청년의 ‘부분’이다. 즉 이들은 당시의 보다 광의의 청년세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하위집단이었고, 식민지 기억의 후식민적 구축이라는 현상과 관련해서도 역시 광범위하게 진행된 제양상 가운데 존재하는 특정한 지점이다. 따라서 학병은 식민과 후식민의 문화적·정치적 구조와 청년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하나의 경우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 시기 청년에 관해서는 문화사적 관점의 시사적인 논의들이 꾸준히 제출되어 왔다. 특히 1920~30년대 중반까지를 주된 대상으로 하여, (식민지) 근대의 ‘최첨단 층’이었던 청년들의 다양한 정체성(학생, 여학생, 기생, 문학청년 등), 정체화 기제, 멘탈리티, 일상적 아비투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한 분석들이 폭넓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의 시기적 편중감은 커서,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조선사회가 다시 한번 크게 재편되는 1930년대 중반 이후의 청년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그간 비어있던 이 영역을 파시즘적 주체화 기획이라는 관점에서 접

근해 들어간 입론은 이런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광의의 청년연구가 내가 폭넓게 참조하고 있는 분야라면 이 글의 핵심적인 대상 및 문제의 식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학병연구 영역이다. 최근 몇 년간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져 특히 학병의 기억과 정체성이 ‘민족주의적’이며 ‘영웅주의적’으로 재구성되는 경위가 규명되었다.²⁾ 한 편 학병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이 제출되어³⁾ 학병세대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 그리고 해방기 귀환 학병의 정치화와 ‘동족살해’의 문제가 탐색되었다.⁴⁾ 나의 관심은 기존의 작업들을 통해 정초된 자원들 안에서 출발하며, 특히 학병의 특정한 체험과 의식 그리고 행위 주체로서의 자인성에 신중한 관심을 기울이는 후자의 작업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학병은 여전히, 새로운 해석적 계기들의 삽입과 접속을 통해 다시-의미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학병을 둘러싼 외적 환경, 학병을 특징짓는 내적 계기, 학병을 의미화하는 재생산 체계의 복합적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제국의 전시통치와 삶의 상태>라는 문제들에, 또한편으로는 <실제로 현존하는 존재와 사후적으로 아우라를 갖게된 존재>라는 문제들에 학병을 위치지어 재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해방 이래 조선의 청년 집단은 국가 건설의 에이전시로 줄곧 호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분단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삼팔선은 그대로 있고 민족상잔은 계속하고 있는 현실이니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금 완전자유독립의 재출발의 과업에 당면하였다고 사유되는 바이다. 이 중대한 과업을 완수함에는 국가에 초석이요 민족의 정화인 청년에게 기대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동시에 청년의 보담더한 강력하고도 활발한 운동을 전개치 않아서는 안될 것”⁵⁾이라는 한 논자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
- 1)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 2)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32, 2007; 최영욱, 『해방이후 학병 서사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9.
 - 3) 황종연, 「조선 청년 엘리트의 황국신민 아이덴티티 수행」, 한일연대21 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참고
 - 4)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이해령, 「해방(가):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27집, 2009.
 - 5) 정해준, 『청년운동의 大本』(한성출판사, 1949)의 「제언」 부분. 필자는 청년은

이, 국가(민족)의 불안이나 위기는 종종 청년이라는 장소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곤 했다. 물론 국가(민족)의 위기와 청년이 담지한 가능성을 긴밀하게 결합시켜 상상한 것이 비단 기성세대 즉 청년의 윗세대들만은 아니었다. 청년 자체가 이와 같은 인식체계를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스스로를 정치적, 문화적 전위로 구성할 수 있었다.

청년이 국가나 민족의 현실적·상징적 핵심에 놓이는 구조는 식민화 과정에서부터 이미 출현했던 바, 더이상 낮은 게 아니다. 그러나 해방이라는 새롭게 열린 역사적 국면은 청년을 둘러싼 자타 공인의 구조를 또다른 방식으로 강화시켰다. 이 자타 공인의 구조 한가운데, 학병-청년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해방과 더불어 생겨난 사회정치적 모순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척결하여 국가(민족) 건설에 복무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 청년들의 자기정당성은 대규모 전쟁 동원으로 인해 감수해야 했던 희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획득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학병출신 청년들의 대사회적 발언은 일련의 집합행동과 공적매체의 발간을 통해 이루어졌고⁶⁾ 이를 통해 학병들은 민족을 위한 존재이자 도래할 국가를 위한 존재로 자기를 위치지었다. 그 대표적인 창구였던 『학병』에서 표명되고 있듯이, 학병은 “조국의 재건”, “민족의 자유” 그리고 “젊은 생명”⁷⁾ 이 세 꼭지점이 형성하는 자발적 헌신의 서사의 주인공이 되곤 했다. 물론 돌아온 학병들의 정치적 입장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병동맹 외에도 학병건설단⁸⁾, 학병단, 학병거부자연맹⁹⁾과 같은 조직들이 서로에 대한 ‘차이’를 강조하면서 생겨나 당시 복잡하게 열린 정치 공간으로 진입하면서 경합하고 있었다.¹⁰⁾ 그러나 이들이 좌우로 나뉘어 어떤 위치에서

“젊은 세대로서 다음 시대의 운명을 질머질 제2국민”이지만 “장년층과 같이 현실적 수행자로서 제일국민의 자격을 획득하여야 할 것이며” “제일선적 작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용은 같은 책, 127쪽.

6) 학병동맹의 『학병』은 그 육성을 전하는 대표적인 창구였다. 『학병』이 창간된 것은 1946년 1월로, “학병동맹 결성강령과 부서작성”을 결정한 1945년 8월 27일 이후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연혁은 학병동맹 총무부, 「학병동맹의 길은 길」, 『학병』, 1946.1. 64쪽 참고

7) 「창간사」, 『학병』, 1946.1, 3쪽

8) 『대동신문』, 1945. 11. 28

9) 학병단과 학병거부자연맹에 대해서는 『대동신문』, 1946. 1.21

발언하고 행동하건, 앞서 말한 세 꼭지점을 이룰 때 만들어지는 젊은 애국청년이라는 정체성 구도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 다양하게 명멸했던 학병단체들은 상호 다른 방식과 경로로 이 틀을 전유하려 했던 것이다.

이 점은 특히 학병-청년이 이념적, 문화적 표상으로 재생산되고 소비되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다. 주권 없는 식민지의 청년이 식민자가 벌이는 전쟁에 강제로 끌려나가야 했던 현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왔다면 이제는 민족갱생과 국가건설을 위한 ‘진정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 학병은 이 현실과 당위가 만나는 지점에서, ‘민족’의 우울과 환희 자체를 압축하고 있는 푸른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코드를 전유하면서 생산된 것이 대중적인 학병 로망이다.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선 대중적인 학병 로망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성격과 효과에 관해 몇 가지만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대중적인 학병 로망이라는 범주는 이러한 범주 자체를 가능케 하는 보다 넓은 재현적 배치와 경쟁의 장을 전제로 한다. 둘째, 대중적인 학병 로망은 청년을 민족(국가) 수난사 및 갱생사와 연결시켜 의미화하는 서사적 계기들을 적극적으로 취한다. 셋째, 대중적인 학병 로망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역할 즉 역사를 둘러싼 집합 기억이나 향수(享受)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차원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텍스트는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한운사의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포함한 『아로운』³부작이다. 두 텍스트는 대표적인 대중적 학병 로망으로서, 이들을 통해 식민지 엘리트 청년의 존재론은 대중물로 번역되고 대규모로 소비되었다. 주지하듯이 『청춘극장』은 소설 자체가 독보적인 베스트셀러였으며 출판 이후에는 세 번(각각 1959, 1967, 1975)에 걸쳐 영화화되었다. 『아로운』 3부작의 경우, 1960년도에 라디오 방송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가 첫출현한 이후 소설 1부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 2부 『현해탄은 말이 없다』(1961) 그리고 3부 『승자와 패자』(1963년 5월부터 『사상계』에 연재)로 이어진다. 1961년에는 영화 「현해탄은 말이 없다」가 나오고 1968년에는 TV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 텍

10) 해방기 학생운동과 학생조직단체 목록은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선문사, 1973 참고

스트는 문화상품이 취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형태를 거치면서 큰 인기를 얻은 셈이다.¹¹⁾ 여기서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텍스트 변용과 간텍스트적 관계들을 참조하되 주로 소설 텍스트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¹²⁾

『청춘극장』과 『아로운』 시리즈가 어떤 형태로든 처음 등장한 것은 각각 1949년과 1960년으로, 둘 사이에는 대략 10여년의 간극이 있다.¹³⁾ 시기적 간극에 따르는 관점상의 차이나 효과상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 11) 「현해탄은 알고 있다」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논문은 윤석진, 「한운사의 방송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 고찰」, 『한국비평문학회』27, 2007. 그리고 김윤식, 앞의 책; 이경숙, 「한운사의 “아로운3부작”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3, 2006이 있다. 전자의 경우 TV드라마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분석의 중심에 놓고 있으며 후자의 두 연구는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다. 이경숙의 논문이 이 소설에 대한 가장 자세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로 인물분석을 통해 이 텍스트가 드러내는 이데올로기적 중층성을 규명한다. 한운사 작품연보는 국립예술자료원,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 http://oralhistory.knaa.or.kr/oral/archive/ARTIST_view.asp?page 참고 영화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포함하여 1960년대 한일 문제를 다루는 영화들을 “현해탄 서사”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글로는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 『현대문학의 연구』, 2010 참고
- 12) 영화 「청춘극장」의 경우 원작 소설의 서사적 스케일이 대폭 축소되어 그 본격성이 많이 감소되어 있다. 한편 영화 「현해탄은 말이 없다」는 1961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설의 대단원에 해당하는 『승자와 패자』의 주인공의 귀환 부분은 다루지지 않는다.
- 13) 김내성의 연보 및 작품목록을 총괄한 박진영(『판타스틱』20, 2009 봄)에 따르면 『청춘극장』은 1949년부터 『태양신문』(『한국일보』의 전신)에 연재되었고 같은 해 말에 단행본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여 1952년에 이르러 총 5권이 완간된다. 이 목록에도 언급되고는 있지만 『청춘극장』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희망의 대해>, <청춘 삼총사> 절의 일부가 처음 발표된 것은 1947년 4·5월호 합본 『백민』을 통해서다. 이 때 제목은 『여인애사』였으며, 이후 첨가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개될 『청춘극장』 연재본 및 단행본의 원형이 고스란히 제시되어 있다. 단행본 두 절의 내용이 『백민』 판본에서는 <희망의 대해>라는 소재목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이 작품 목록의 하나의 오류는 『백민』판본의 『여인애사』가 단편이라는 설명이다. 『여인애사』는 게재 당시 ‘장편소설’이라는 장르명을 달고 있으며 말미에 ‘계속’이라는 안내를 하고 있지만 다음 호부터는 실리지 않는다. 다음 호 편집후기에 따르면 “본지가 격월발행인 관계로” 『여인애사』의 연재를 “중지”했다고 한다. 이후 본격적인 구상을 거쳐 『태양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 소설의 초기 제목이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춘 『여인애사』였다는 점은 흥미롭다.

고 이들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식민지의 젊은 엘리트 청년의 극적 운명과 애환을 통해 민족과 국가의 부침을 상상하는 패턴을 정형화했으며, 동시에 이 패턴이 대중의 감수성을 충분히 자극한다는 일정한 수용의 경향성 또한 입증했다. 그렇다면 학병을 둘러싼 재현체계, 기억체계 그리고 감수성 체계의 구성 과정과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을까. 이에 답하기 위해 먼저 살펴 봐야 할 문제는, 압축하자면, 학병은 누구인가 그리고 학병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이다. 이는 학병-청년의 문화사적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차원의 검토를 요한다. 다음으로 따져 봐야 할 것은 학병 로망의 실체는 어떠한가 그리고 학병은 어떻게 대중적 기호(嗜好)에 응하는 기호(記號)가 될 수 있었는가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두 사항은 대중적 학병 로망이라는 특정한 재현 층위와 연관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이 가지 물음들을 조합하고 종합함으로써 학병-청년이 식민지의 시절을 건너 국민국가 시절로 넘어오면서 지나온 길 그리고 이 길 자체가 재생산되고 감수(感受)되어 온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시 식민지 청년의 인구사회학적 편성과 학병의 위치

일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군사 동원을 시작한 시점은 중일전쟁 발발과 맞물린다. 1938년부터 시작된 총력전 동원정책은 태평양 전쟁을 진행하면서부터는 대규모로, 전면적으로 실행되기에 이른다. 식민지의 청년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식민자의 급박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 직접적인 대상이 된 것도 1938년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청년을 호출하는 군사동원은 1938년의 지원병제(육군특별지원법령)로 출발하여 1943년의 학도지원병제(대학생 징집연기 임시특례법), 해군특별지원병제를 거쳐 1944년의 징병령으로 이어졌고 이와 같은 단계적 포획의 순서에 따라 조선의 거의 모든 청년들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된 것이다. 중일전쟁 당시 조선의 프로파간다 이데올로그들이 조선의 위상변화 가능성을 놓고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선의 젊은 지원

병을 통해 우려에서 다소 벗어나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전쟁을 지원하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병사되기=국민되기>라는 환상을 만들어 후방으로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자원했다는 것은 기억할 만한 현상이다.¹⁴⁾ 중일전쟁이 만들어낸 전시 식민지 청년의 새로운 정체성이 ‘지원병’이었다면 태평양전쟁이 만들어낸 또하나의 청년 정체성인 ‘학병’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었을까.¹⁵⁾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 이유는 우선 식민지 청년 집단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합체가 아니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더불어 바로 이 비동일성과 비동질성의 상황에 기반하여 제국의 전시 통치가 계획되고 있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이유이다. 나이가 좀더 연장해보면, 이 질문은 청년 집단 내부의 분할과 차이로 인해 특정한 하위 집단이 이후의 역사 재현의 상징적 경합의 장에서 우점종이 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데도 요구될 것이다.

전시 일본의 청년 통치의 핵심은 늘어가는 병사에 대한 수요를 조선 청년 계층의 내부 분할선에 맞춰 감당하는 일이었다. 식민지 청년집단의 이와 같은 활용 패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938년 이래 형성된 지원병이라는 정체성과 1943년 무렵에 구성된 학병이라는 정체성이 조선 사회 청년의 성층(成層) 구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다른 위치와 맥락을 갖는다는 점이다.¹⁶⁾ 조선인 병사와 징병에 관한 히구치 유이치(樋口雄一)의 논의는 조선 사회의 계층구조와 조선청년 내부의 계서제적 차이가 제국의 군사 통치에 어떤 식으로 고려되었는가를 포착하는 뛰어난 통찰력을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지원병에 자원한 청년 혹은 지원병으로 선발된 청년은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 중층에 속하는 젊은이에

14) 이에 대해서는 김예림, 「전쟁 스펙터클과 전장 실감의 동력학: 중일전쟁기 제국의 대륙통치와 생명정치 혹은 조선·조선인의 배치」, 『동방학지』147, 2009 참고

15) 학병 역시 형식적으로는 ‘지원’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도상의 핵심적 성격에 기반하여 1938년 이래의 지원병제와 사실상의 강제징집이었던 1943년 이래의 학병제도를 구분한다.

16) 학병과 지원병의 차이는 해방 이후의 정국에서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진에 따르면 지원병 출신들은 상명하복의 수직적 명령계통을 엄수하는 등 군국주의 기질이 강했다. 이들은 해방 후에 학병과는 달리 단체 조직을 갖지 않았으며, 군정경찰의 보조기구로 만들어진 국방경비대에 열성적으로 참여한다. 안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2005.

해당한다.¹⁷⁾ 지원병의 90프로가(9096명) 공립보통학교(소학교) 6년 졸업 정도의 학력소유자로, 기본적인 일본어 이해 능력을 갖춘 집단이었다. 피식민자를 일본제국의 군인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선발의 제일의적 기준이 되었던 것은 훈련과 소통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제국어 능력이었다. 더불어 지원병의 전직(前職)에 관한 통계를 보면 농업종사자가 약 56프로로 압도적인 수를 점하고 있으며 직공, 상업 종사자가 농업종사자 수의 약 10분의 1 정도의 수치로 그 뒤를 잇고 있다.¹⁸⁾ 1938년을 넘어서면서 지원병에 대한 선전과 찬사가 다양한 매체의 곳곳을 장식하고 이들의 크고 작은 무훈의 정신을 전하는 기사들이 담론장에 출현한다. 하지만 사실상 많은 수의 조선인 지원병들은 당시 농업사회가 직면한 모순과 취업난 구조에서 생겨난 젊은 유희 노동력이었던 셈이다.¹⁹⁾ 1941년에 나온 영화 「지원병」이 그 선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또렷하게 드러내는 현실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지원병 청년들의 계층적 위상이다. 이들이 직면했던 생활의 고통, 일상의 곤란 그리고 이로부터 비롯되는 정동과 욕망의 복잡한 교차하는 이 영화에서 매우 인상적으로 각인되어 있다.²⁰⁾

그렇다면 학병은 과연 누구인가. 식민지의 젊은 엘리트로 조선과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다가 ‘지원’이 아닌 ‘강압’에 의해 제국의 군인이 되었던 이들의 존재는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들의 지위 역시, 지원병이 그러하듯이 종적(세대적), 횡적(여타의 청년 집단) 구획을 통해 성격화될 수 있을 것이다. 지원병의 대부분은 20세를 전후한 연령대에 속했고 병사가 되고자 하는 이 젊은층을 상찬하고 지지한 자들은 이들보다 윗세대에 속하는 지식인 집단이었다. 학병들의 사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의 영

17) 히구치 유이치가 제시하고 있는 통계 <특별지원병의 학력(1938~1942)>에 의하면 지원병 가운데 전문학교졸업자는 단 2명 뿐이다. 樋口雄一,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2001, 162쪽 표3 참고

18) 1938년부터 1942년까지의 지원자 통계표에 따른 것으로, 총 11364명 가운데 농업종사자가 6321명이며 상업 622명, 직공 631명, 회사 사무원이 616명 그리고 일반 고용인이 500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위의 책, 161쪽.

19) 위의 책 참고

20) 「지원병」의 영상화와 재현-의미체계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는 글로는 백문임, 「“군인이 되세요”, 『동방학지』147집 참고

광과 전쟁 복무자의 애로를 보고 기록하기 위해 복지로 떠난 박영희, 김동인, 임학수 등의 문인이 그 지역에서 군속으로 파견된 조선인 지원병들을 감격에 차 바라보면서 『전선기행』을 썼던 것처럼, 학병 역시 윗세대 선배 지식인 집단의 열렬한 지원과 지지를 받았다. 일례로 최남선과 이광수는 “중책을 맡은 대선배일뿐 아니라 조선의 각 부분에 있어 권위자”²¹⁾라는 자격으로 동경에 가서 학병 권유 연설을 했다. 이들은 조선의 “충분히 귀엽고 좋은 아이들”이 “좀더 뜻을 크게 품어 일본 전체나 대동아 전체를 짊어지려는 그런 기개를 가졌으면 싶”²²⁾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해방 이후 쓰여진 두 이 두 문인의 참회적 자기고백에 학병 권유의 ‘곤혹스러움’에 대한 토로와 변명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병을 둘러싼 전시의 세대적 분업 체제는 분명했던 듯하다. 이제 곧 군인이 될 “반도 청년학도”를 대하는 사회 선배들의 세대 감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돌이켜 생각하건대 우리와 같이 이미 노년에 들어간 사람은 과거에 있어서 내 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학업을 닦아보지 못하였으나 제군은 어려서부터 내지인 학도와 조금도 다름없는 학창생활을 하여왔다. 제군의 능한 그 ‘고꾸고’며 그 교복이며, 그 정신이며, 모두 훌륭한 황국학도다운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제 또한 가장 광영스러운 군인으로서도 빛나는 출진을 하게 되었으니 제군의 기쁨과 우리 선배된 자의 기쁨과 나아가서는 반도 동포 전체의 기쁨이야말로 무엇으로 형언할 수 있을까.²³⁾

학병은 이렇게 종적 분할선에 따라 세대적으로 의미화되고 있었고 또한 편으로는 동일한 사회적 연령대의 횡적 구분선에 의해 차이화되고도 있었다. 횡적 차이화 양상은 크게 <내지학도/조선학도>라는 대칭쌍 그리고 <중하층 청년/ 상층 엘리트 청년>이라는 대칭쌍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내가 특히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대칭쌍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

21) 「학병 권유차 도쿄에 간 최남선, 이광수의 <도쿄대담>」, 김윤식, 앞의 책, 399쪽. 이에 대한 해설 역시 김윤식, 같은 책을 참고할 수 있다.

22) 위의 글, 404쪽.

23) 양주삼, 「호반(虎班) 전통을 창조-적국의 학생병을 치자」(『매일신보』, 1943. 11. 8), 정운현 편,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없어지지않는이야기, 1997, 23-24쪽.

에 앞서 전자의 경우를 잠시 일별해보자. 제국 그리고 조선의 학병권유자의 논리가 보여주듯이, ‘누군가 군인이 될 권리’(지원병)의 수준을 넘어서 ‘모두가 군사가 될 의무’(학병, 징병)의 수준에 도달할 때 비로소 조선인이 완전한 국민이 되고 내지인과 동등해질 수 있다는 허구와 환상이 당시에 전면화 되어 있었다. 조선의 청년은 1938년 무렵에는 지원병이 될 수 있는 소수의 ‘권리’를 통해 전 조선인의 국민화 가능성을 예기해주어야 했고, 1943년 이후에는 학병이라는 ‘의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 이 허구적인 평등의 환상이 엘리트 청년을 전장으로 불러내기 위한 근거로 이용되었던 것인데,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설득은 이러한 구조적 작동을 명확하게 표면화하고 있다.

재학징집연기의 정지에 의하여, 내지인 학생은 법의 발동에 의하여 용약출정하는 광영에 욕(浴)할 수 있거니와 제위의 자제는 그냥 자연 방치했다면 노동전사로 생산부문에 징용될 수밖에 없었다. 노동으로써 봉공하는 것이 찬하다는 말은 아니다. 같이 남양을 가되 내지인 동창은 간부장교로 가고 제위의 자제는 노동대로 간다면 인정상 시간(期間)에 약간의 유감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든 것이 금번의 제도에 의하여 내지인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전열에 서게 되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나²⁴⁾

내지 청년은 고등군인이 되고 조선인 청년은 노동대에 그치고 마는 불평등을 조선 엘리트 청년의 의무이행을 통해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선전이 얼마만큼의 현실적, 담론적 효력을 발휘했는지를 따지는 일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듯하다. 사후적 기록들에 기댄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논리가 당시 조선의 엘리트 청년에게 가까이 수용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단 <내지학도(조선학도)>라는 대칭쌍의 작동과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다면, 전시 통치와 포획의 기술이 식민지 출신 젊은 고등교육 수혜자가 식민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차별, 즉 동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지는 에스닉 차별에 관한 민감한 의식을 자극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제 조선 내부에서의 학병의 위상을 말해주는 <중하층 청년/상층 엘리트

www.kci.go.kr

24) 「지원자의 부형에게」(『매일신보』 사설, 1943.11.5), 위의 책, 147쪽.

트 청년>이라는 구도를 검토해보자. 앞서 살펴보았지만 생활(난)과 취업(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또한편으로는 최하층 집단과는 달리 일정수준의 지적 능력과 제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중간층 청년들이 지원병제를 둘러싸고 어떠한 사적 입장을 가졌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지만 실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지원을 통해 군인이거나 군속이 되어 전선으로 투입될 것을 선택한 청년들의 정황이, 그 자신들에 의해 거의 발화된 바 없이 다른 발화자들에 의해 매끈한 애국의 서사로 도장(塗裝)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이 어지럽게 혼과여 있고 복잡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이들의 내막이 어떠한 학병은 지원병들과는 또 분명 다른 위치에, 다른 태도로 존재했다는 점 또한 추론 가능하다. 1942년 조선총독부가 징병제 실시를 고지한 이후 학병은 1943년 일련의 절차를 밟아 1944년 1월 20일에 입대한다. 징병제에 따른 실제적인 징집과 배치가 시행된 것은 1944년~1945년으로, 1942년 이래로 추진된 징병제 시스템으로 상층의 젊은 엘리트들도 흡수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병대상자가 된 집단은 고등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환경 출신으로(지주나 상공업경영자), 중간층 지원병의 경우처럼 일종의 ‘직업’으로 병사를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그럴 필요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경제적 기반을 갖고 있었다.²⁵⁾ 이들의 경제적 배경의 성격이 이러하다면,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특정한 세계감각 역시 중간층과는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질 것이다.²⁶⁾ 학생 집단은 제국의 군사동원 정책 단계 면에서 볼 때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집요하게 이루어진 강제적 징병제의 새로운 포획 대상이었기 때문에, 전시에 진행되고 있는 무조건적 병영화의 상황을 전면적

25) 樋口雄一, 앞의 책, 120쪽 참고

26) 해방기 청년세대의 움직임은 전면적으로 스케치하고 있는 것은 김남천의 소설 『1945년 8.15』(『자유신문』)이다. 학병반대 격문 사건으로 체포된 후 해방과 함께 출옥한 김지원이 격문사건 당시 자신의 ‘영웅심라’를 비판하면서 “삼천만의 다대수가 소학교에도 당기지 못한 환경 속에서 회고학문을 교육바든 영광과 은혜를 입은 자임에 불고하고 하나도 민족의 신화와 희망 속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자기비판하는 맥락도 역으로 읽으면 계층적 거리를 반증하는 셈이다. 그는 자신이 “격문을 뿌릴 때에도 이러한 현실의 모순에 대해서 어떤 책무나 책임을 느끼며서 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인 억압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학병제를 통해, 지금까지 군사적 ‘권리’나 ‘의무’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던 고등 지식청년은 (유)학생에서 병사로, 거의 단절에 가까운 존재 전환을 강요당하는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중간층 또는 하층 청년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생존의 고민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롭던 이들 그리고 취업이 현실적인 고민일 수는 있겠지만 그 고민 자체를 어느 정도는 유예할 수 있는 학생신분이었던 이들은, 자기 집단을 성격짓는 이 특유의 존재론적 ‘여유’를 전시 통치의 장에서 완전히 몰수당할 위험에 처했다. 이 상황은 심대한 개인적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공적인 비애감 역시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선의 기성 이데올로기가 이 점을 포착하지 못한 것은 절대 아니었으며 어떤 점에서는 학생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듯싶다.

그래서 혹자는 “제군은 일반국민보다는 지적 수준이 높은 만큼 어떠한 명제에 대하여서라도 일차 마음의 반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더구나 오늘과 같이 제군이 대사일번(大死一番)의 판단을 즉석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될 찰나에 있어서 제군에게 맹목적인 추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제군의 이와 같은 반문과 번민을 다른 부류에 속한 사람보다 잘 알고 있음을 자부한다”²⁷⁾고 언급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말하고 있는 “지적수준”과 “마음의 반문”, 이것은 적어도 중간층 지원병이나 하층 징병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질이라 가정된, 고등 지식집단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미덕(능력)이자 악덕(위험요소)인 것이다. 또다른 논자 역시 학생의 “복잡다단한” “심경”을 논하면서 “죽음, 가정, 국가 그러한 문제가 교차하여 견잡을 수 없는 바 있을 것”²⁸⁾이라고 수궁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마음을 가다듬어 오직 광명의 일도(一途)를 바라고 용왕매진”하라는 궁극적인 충고와는 무관하게, 아주 정확해 보인다. 죽음과 가정과 국가(민족)라는 문제는 생사여탈권이 완전히 제국의 수중에 달려 있는 그리고 그렇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인지하게 된 젊은 엘리트 청년을 한꺼번에 사로잡은 번민의 핵심이었을 것이

27) 김성수, 「대외에 죽을 때 황민됨의 책무 크다」(『매일신보』, 1943.11.6), 정운현 편, 앞의 책, 21쪽.

28) 김두현, 「순국의 기상 가지라」(『매일신보』, 1943.11.22), 위의 책, 36쪽.

다. 학병에게 죽음이라는 문제는 신체와 생명의 물리적 훼손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욕망과 영예의 정당한 추구권의 종언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자신을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희생한 사적 공동체의 완전한 파국 즉 절대적 기대와 신뢰에 기반한 친밀한 소우주의 와해를 뜻한다. 그리고 여기에 국가(민족)의 문제가 동반된다. 일본이라는 제국이 자신들의 국가인 가,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런 요구를 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왜 이런 강제를 하는가, 이러한 의문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식민지 엘리트 청년—아직은 열등한 이종족이며 비국민인 젊은 부족(部族)—은 없었을 것이다. 사후적 발언이긴 다음과 같은 고백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1943년 11월, 나는 명치대학 정경학부 3학년에 재학 중 졸업을 눈앞에 두고 수업을 중단하려니 원대했던 이상도 사라지고 부모님에게 죄스러워 절망만이 눈앞을 가렸다. 뿐만 아니라 목전에 다다른 학병 지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옳을지 좀처럼 결심이 서지 않았다(……) 비록 부모의 은덕이기는 하나 원대한 이상을 품고 젊음의 정열을 오로지 학업에 쏟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이곳 동경에 유학온 지 5년만에 명치대 예과를 마치고 이제 최고학부의 졸업을 눈앞에 두고 그 동안 쌓아온 형설의 공이 허무하게도 일시에 무너지게 된 것이다(……) 아뭏든, 이제는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한다는 학생의 입장을 떠나서 나라없는 민족으로 한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와 민족적 비애를 통감하게 되었다.²⁹⁾

이것은 1945년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는 수많은 학병 수기들을 통해 뚜렷이 확인되는 일종의 공통감정이라 할 수 있다. 기억의 의식적·무의식적 재구성을 염두에 둔다 해도 이 서로 얽혀 있는 중층적 불안과 절망의 현실성을 부인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1940년대 전 시 공론장의 정황상 학병의 복잡한 내면은 그 육성을 드러낼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학병의 ‘마음’이라는 것은 당대의 선전성 좌담회나 기사들이 보여주듯이 애국주의로 각색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절박하게 있었을 법한 고민이나 사유는 그들 아닌 다른 자의 충고나 격려 속에 ‘떨쳐버려야 할 것’으로 언급되면서 열은 흔적처럼 남겨졌다.

그런데 학병 체험의 기록성이나 시차의 문제는 넓게는 특정 집단을 둘러

29) 유재영, 『7인의 탈출』, 삼지원, 1993, 46-47쪽.

싼 집합기억의 (재)생산과 그것의 ‘보편적’ 수용 또는 인증이라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제국의 전시 통치와 군사 육성책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식민지 청년 내부의 계층적 서열을 고려하여 운용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지원병과 학병이 생성되고 있었으며 이어서 지금까지는 배제되었던 하층민 청년까지도 포괄하는 무차별적 징병자들 역시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층적이고 치밀한 총력전 통치 정책의 용의주도함으로 인해, 그 당장의 상황에서는 복수의 청년들이 가진 생활의 곤란, 일신상의 욕망, 죽음의 공포, 징병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 등을 발화하는 그 누구의 목소리도 흘러나올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처럼 철저하게 봉쇄당했던 청년들의 체험은 언제, 어떻게 흘러나와 생생하게 증언되고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과연 이들 가운데 어떤 청년이 구조로서의 전쟁과 전시 그리고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전장을 말하고 쓰고 사유함으로써 자신들이 겪었던 체험을 사회적으로 공유가능한 공적 자본으로 만들 수 있었는가.

그 구조와 역학 그리고 에이전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것은 고도의 리더십이라는 사안일 것이다. 특히 보존과 유포의 지속성과 과급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쓸 수 있는 능력이란 꼭 중요하다. 식민지 시기의 학병은 해방과 더불어 학병 ‘출신자’가 되었고 자신들의 체험을 육필로 남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중간층 지원병과 하층 징병자들과는 달리 이들이 전유하고 있던 월등하게 뛰어난 상위의 능력 즉 사유 능력과 사유의 표현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이 갖는 의미는 이들이 해방 후 오래도록 계속해서 남긴 다양한 기록물들을 통해 고찰될 수 있을 것이다.³⁰⁾ 역사적 기억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며 유포하고 계승하는 이 광의의 기록물의 장에서, 일종의 하위 양식으로 범주화될 수 있을, 대중을 향해 활짝 열려있던 학병로망의 성격과 위상도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30) 그러나 기록의 형태라는 점에서 일본인 학병의 경우는 좀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일본인 학병이 남긴 1940년대 당시 기록을 통해 학병의 정신지를 재구성하고 있는 오오누키 에미코의 작업이 보여주듯이, 기록의 당대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인 학병의 기록물들은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 이들의 기록은 모두가 ‘사후적인’ 것이다.

3. 학병로망의 구조와 의미코드들: 통치 장치와 도주

3-1. 탈출과 도망병 되기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다양한 유형의 귀환자들이 고국으로 향했다. 학병도 이 ‘돌아온 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돌아온 후 곧 이들은 전장의 현실과 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자신들의 간난신고 그리고 애국(애족)의 정념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매체 장악력, 공론장으로서의 접근용이성, 사회적 발언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제 징집의 부당성을 비판할 수 있는 민족주의적 도덕성과 지성을 소유한 자로서 학병들의 발언은 신뢰의 무게를 싣고 곳곳에 소개된다.³¹⁾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병 출신자의 발언과 기록은 계속되어 왔다.³²⁾ 잡지에 실린 단편적인 성격의 기사 외에, 학병수기는 1940년대 말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출간되기도 했는데 『사신을 헤매며 학병탈출기』(윤재현, 1948)³³⁾, 『학병탈출기』(최정식·김이현 기록, 1949)가 그것이다. 이후로도 이러한 유형의 기록물들은 『청춘만장』(1.20동지회, 1972), 『1.20 학병사기』1~3(1.20동지회, 1989) 『7인의 탈출』(유재영, 1993), 『탈출기』(김문택, 1995)³⁴⁾ 등으로 줄곧 이어졌다.³⁵⁾ 여러 유형으로

31)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실린 매체로는 『신천지』와 『학병』을 들 수 있다. 『신천지』에서 마련한 「귀환학병의 진상보고」(1946. 2) 「신관임거정-학병거부자의 수기」(1946. 4~6) 그리고 그밖의 학병의 보고나 수기를 통해 개인의 이야기가 민족이야기로 수렴되는 양상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최지현, 앞의 글 참고

32) 이들의 글쓰기 유형과 이 행위가 갖는 의미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김윤식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그는 학병세대의 글쓰기 방식을 분류하면서 실제 학병체험을 했던 이병주, 이기형, 한운사 등의 저작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김윤식, 앞의 책 참고

33) 이 책은 실물 확인이 어려운데, 1948년 12월 22일자 『자유신문』의 짤막한 신간평란에 마해송이 소개하고 있다. 기사를 참조하자면 단행본으로는 가장 빨리 나온 학병탈출기가 아닐까 한다.

34)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https://search.i815.or.kr/OrgData/OrgList.jsp?tid=do&id=1-010146-001>에서 수기 원문 및 DB 자료를 볼 수 있다.

35) 그 외 김윤식은 논픽션 장르로 이기형의 『비마전선 패잔기』, 장준하의 『돌베개』, 김준엽의 『장정』, 신상초의 『탈출』 등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강제동원된 자들의 역사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축적되기에 이른 현재³⁶⁾, 학병의 이야기는 식민지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역으로 부분화되면서 일반화되었다. 이들의 ‘육필’의 결과물들이 국민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와 기억의 재구성이라는 징후적 양상까지를 모두 포괄하여, 의미있는 역사적 자료로 기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학병의 수기는 주로 자신들이 참여해야 했던 전투, 일본 군영 내에서의 힘겨운 생활, 지원과 입영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학병거부를 위한 도피 생활 등을 소상하게 적고 있다. 어떤 경우든 이들의 회고에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적 당위론이 강하게 깔려 있음은 아주 쉽게 확인되는 바이다. 이들 가운데 학병 수기의 하나의 중요한 하위 장르라 해도 좋을 탈출기들이 존재한다. 많은 탈출기들이 먼 이역에서의 전투 기록 못지않은 극한 상황을 전해 주고 있다. 이러한 학병의 자기기록이 특히 국민국가 건설 초기에, 제일의 적 가치와 기능을 구가했던 애국애족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복무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정과 공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은 국가없는 민족의 애환과 국가를 가진 국민으로 갱생하려는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 젊은 엘리트 집단이 고귀한 희생과 희망찬 미래를 의미하는 꽃같은 존재로 인식되는 구도는 이후의 국민국가 상상 체계에 큰 무리없이 착상하여 안정화된다.

젊은 엘리트의 극적인 수난사가 대중적인 코드와 결합하여 학병로망이 탄생했을 때 그 울림은 증폭되었고 이에 공명한 수용자들도 획기적으로 많아졌다. 실제로 학병은 그 존재감이 가장 생생했을 법한 1940년대 중후반기의 문학장에서 특별히 중요한 방점이 찍혀 있는 서사 자원이 결코 아니었다.³⁷⁾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한운사의 『아로운』 3부작의 출현이 흥미로운

36) 2004년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발족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그러하다. 이 기구의 기억수집 작업 및 자료화에 대해서는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16호, 2007. 과거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신주백,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과거청산운동의 역사」, 『역사문제연구』14, 2005.

37) 소품으로 一香, 「학병의 안해」, 『민성』, 1946. 5, 계용목, 『바람은 그냥 불고』, 『백민』, 1947, 6-7 합병호, 정비석, 「思郷歌-어떤 학도병의 수기」, 『백민』, 1950. 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일 수 있다. 학병 출신자를 중심에 두고 해방 이후의 복잡한 갈등구조에 접근하려 했던 이병주의 『관부연락선』이나 선우휘의 「불꽃」 등과 비교해볼 때 이 두 텍스트는 전형적인 대중물의 관습과 코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매체적 재생산 연쇄 구조 역시 충분히 대중 지향적이었다. 물론 이 두 텍스트가 학병로망이었기 때문에 폭넓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청춘극장』과 『아로운』 3부작의 뚜렷한 돌출은 멜로드라마 특유의 서사 방식(지연, 우연, 수난, 장애 그리고 복잡한 애정관계),³⁸⁾ 기존의 대중소설을 통해 익숙해진 문법의 차용, 그 간의 문학에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었던 전시 식민지 풍경의 본격적 전시 등 시대적 감수성에 들어맞는 다양한 흥미 요소들이 복합작용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의도하는 것은 학병 모티프를 대중성 획득의 원인으로 고정시키는 일이 아니라, 학병로망에서 대중성의 획득이 왜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묻는 일이다. 그리고 민족, 역사, ‘특별한’ 청년 사이의 긴밀한 접합을 가능케 하는 특유의 상상 구조를 규명하는 일이다.

김내성의 『청춘극장』은 출간 당시로서는 근거리 과거였던 식민지 말기의 조선 사회를 ‘청춘’이라는 렌즈를 삽입하여 재구성하고 있다. 이 소설에서 학병 모티프가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논자들에게 의해 몇 차례 언급되긴 했지만³⁹⁾ 이에 초점을 맞춰 본격적인 다사-읽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없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근거가 있는 바,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소설에 김내성이 일찍이 집중했던 장르문학적 양식들 즉 첩보·범범죄리물의 요소들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애정 멜로극으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⁰⁾ 더불어 세 명의 남성 주인공을 통해 당시 엘리트 청년들에게 주어졌던 삶의 세가지 가능성 곧 문청, 독립운동가, (예비) 전문직 지식인이라는 갈래길을 병치시켜 서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 『청춘극장』을 학병로망으로 치환하여 해석하는 작업

38) 멜로드라마의 양식적 특징에 대해서는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39) 김윤식, 앞의 책;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대중서사연구』21, 2009; 이호걸,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한국액션영화」, 『대중서사연구』21, 2009.

40) 이영미, 위의 글

은 텍스트가 지닌 복합적 의미망을 축소시킬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통시적이고 원심적인 관점에서 이 텍스트를 재정위한다면 『청춘극장』이 대중적인 학병로망 특유의 패턴을 선취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파악도 충분히 가능할 듯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전환과 연장을 위해 요구되는 또하나의 연관 텍스트는 앞서 밝혔듯 『아로운』 3부작이다. 『아로운』은 『청춘극장』과 비교해볼 때 훨씬 더 압축적이고 정격적인 방식으로 학병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⁴¹⁾ 이 텍스트가 이런 저런 양식으로 대중들 사이에서 번성했던 시점은 1960년대 초반으로⁴²⁾, 『청춘극장』과는 또다른 시대적 정황에 놓여 있었다고 하겠다.

두 텍스트의 간텍스트적 양상, 즉 무엇이 서로 교환되고 공유되었는가 그 범람으로써 어떤 상상패턴을 생산하고 파생효과를 낳았는가 하는 점을 파악한다면 학병과 학병로망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탐색을 위해 여기에서는 특히 학병로망이 공통으로 취하고 있는 ‘탈출’ 모티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련하여 한 가지 부연해야 할 것은 ‘탈출’이라는 계기가 텍스트 내적 측면에서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탈출 혹은 도주란 단지 ‘모티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허구적 텍스트의 지평을 벗어나 학병의 ‘현실’로 연장되는 실제의 장에서 선택된 일련의 행위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듯하다. 따라서 이 행위가 갖는 의미를 되묻는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전시 경찰 제국이 취하는 강력한 치안적 분배⁴³⁾ 체제와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식민지의 범법적 혹은 불법적

41) 이러한 현상은 『청춘극장』의 서사적 자원과 『아로운』의 그것이 갖는 연원적 차이에서도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학병 체험을 하면서 이 때 써놓은 일기를 바탕으로 일본군내의 현장을 실감 있게 다룰 수 있었던 한운사와는 달리 김내성은 간접적으로 획득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물론 『청춘극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학병 체험은, 이후 나온 수기들을 참조해보면, 특별한 비현실적 과장을 담고 있지는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조선인 학병 일상의 매우 전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42) 『아로운』 시리즈의 창작동기와 장르전환 양상 그리고 당시 수용자들의 반응에 대한 한운사의 발언은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 <http://www.daevon.or.kr/> 참고.

43) ‘치안적 분배’라는 용어는 랑시에르에게서 빌려온다. 그는 정치와 정치적인 것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이 개념을 쓰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치적인 것은 “이 질발생적인 두 과정의 마주침”인데, 이는 환원하자면 통치=치안과 평등=해방

존재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총동원 시스템이 고도의 긴장과 강박으로 작동하는 현상과 그것의 내과 가능성이 증대되는 현상은 서로 비례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⁴⁴⁾ 피식민자의 도주는 이 비례 관계를 드러내는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다. 노동력과 병력의 주요 자원이었던 조선인 관리를 위해 각종 법제 및 경찰력이 강화되는 현실에 상응하여 피식민자의 도주나 이탈 역시 빈번해졌던 사실은 전시 제국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치안과 범법의 길항구조를 보여준다.⁴⁵⁾ 학병의 탈출 또는 학병로망의 탈출 모티프의 해석 지평도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교전권에 대한 슈미트의 논의에서 식민자가 벌이는 전쟁과 피식민자 사이의 문제는 중요한 관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종속된 집단이 전시에 처하게 되는 혼란에 대해 짧지만 정확한 지적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민이 정치적인 영역 안에 존재하는 한 적과 동지의 구별은 국민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능력이나 의사가 결여될 때 즉 자신의 적이 누구인지, 누구에 대해서 싸워야 할 것인지를 타인의 지시를 받게 될 때 그 때 국민은 이미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않으며 다른 정치체제에 편입되거나 종속된 상태라는 것이다.⁴⁶⁾ 적과 동지를 결정할 수 없

사이의 미주침을 뜻한다. 치안이란 기본적으로 자리와 기능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규칙들의 원리이다. 해방은 이 ‘안전’의 논리를 교란시켜 ‘평등’을 입증하려는 과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특히 1부의 「정치, 동일시, 주체화」 부분 참고. 인용은 137쪽.

44) 억압적 통치 장치를 운용하는 제국과 그 내과 가능성의 증가 양상은 장 신 『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역사문제연구』, 2001을 통해서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45) 조선인에 대한 규제정책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주자들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되었다. 조선인 도일(渡日)자 수는 1930년대 말 이후부터 급증하는데 이는 물론 전쟁 발발로 인한 노동력 수요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광열, 「1940년대 일본의 渡日조선인 규제정책」, 김광열 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 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그리고 협회회 설립과 감시기능에 대해서는 김광열, 「1940년대 전반 일본경찰의 재일조선인 통제체제」, 앞의 책 참고. 이 글에 따르면 1939년 10월부터 1942년 10월까지 강제 동원된 조선인 가운데 도주자의 비율은 평균 32%를 웃돌았다고 한다. 도주자 방지와 색출과 관련하여 협회회원증은 중요하게 소지해야 할 증명서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 조선인 부락을 등장시키고 있는 『아로운』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는 상황, 제국이 적이라고 지명한 상대가 진짜 적인지, 어찌하여 적인지를 의 심하게 되는 상황. 이 점이 전시 식민지 조선과 조선(인)이 처해 있던 모순과 동요의 핵심일 것이다. 『청춘극장』과 『아로운』은 이렇게 식민자의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조선인 청년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청춘극장』에서 이러한 상황은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좋건 싫건 당신의 총 부리를 저편으로 댈 수밖에 없을 것이 아닙니까? 저편으로 대고는 대체 누구 를 쏠겠다는 말씀이요? 중국인을 쏠겠다는 말이요? 중국인이 우리의 땅을 먹 었습니까? 미국인이 우리의 땅을 먹었습니까? 30여년 동안 우리 땅을 먹어 온 사람들에게게도 못대는 총부리를 대체 어디로 대보겠다는 말이요?”⁴⁶⁾

『청춘극장』에서는 누가 적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애매성에도 불구하고 싸울 것을 압박받는 상황에서 학병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라고 정리한다. 자살 아니면 도주가 그것이다. 백영민은 학병 거부자로 도주를 감행한다. “이 운명의 열차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나는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도망을 해야만 하지 않느냐”는 결심으로 그는 첫 번째 도주를 실행한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는 복지로 떠나 병영 생 활을 시작한다. 이곳에서 다시 두 번째 도주를 계획하면서 ‘도망병 되기’의 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그의 모든 탈주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출정 후 부상병이 되어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청춘극장』을 통해 학병의 기나긴 탈주의 욕망, 그 절박한 논리가 웅변적으로 재현된다는 점이다. 이 ‘도망병 되기’는 『아로운』 시리즈 전체를 받치고 있는 핵심 줄기이기도 하다. 『청춘극장』이 복지로 간 백영민의 운명과 선택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 『아로운』은 일본으로 끌려온 학병 아로운의 행로를 따라 전개된다.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폭력과 인간적 모욕으로 점철된 내부만 생활을 피해 도주한 아로운은 이제 공습하의 나고야, 히코네 등을 숨어 떠도는 도망병일 뿐이다. 그는 “유령”처럼 보이지 않게 숨고 정체가 탄로나지 않도록 거짓말과 거짓행세를 해야 한다. 도망병으로 감내해야 하는 존재론적 전략에 아로운은 다음과 같이 울분을 토한다. “보라, 내가 여기 있다. 숨지도 감추지도

46)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전 역, 범문사, 1995, 60쪽 참고

47) 김내성, 『청춘극장』2, 흥진출판사, 1975, 201쪽.

않는다. 너희들 눈이 여기를 보면, 여기 서있는 나를 볼 것이다. 보고선 어쩔 테냐? 내가 죄인이나? 탈주병? 내가 들어갈 의사도 의무도 없는 곳에 끌려 갔다가 내 자의로 나온 것이 죄란 말이나? 그밖에도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도둑질도 살인도 안했다. 내가 죄인이나? 자 보라! 얼마든지 보라!”⁴⁸⁾ 드러나서는 안되는 범법자 아로운은 폭격으로 붕괴된 도시를 떠돌다가 과편을 맞고 부상당한 후 체포되어 육군병원으로 후송된다.

이렇게, 두 편의 대중적인 학병로망은 도주의 서사를 뼈대로 삼고 있다. 학병의 탈주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우선 서사 전략 측면에서 살펴보자. 길고 불안한 탈주의 시간과 최종의 귀환의 시간은 문제적 개인의 긴박한 모험과 내면의 여행을 기록하는 로망의 기본문법을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 무수한 장애와 위협들 그리고 자연과 방해 요소들이 상존하는 도주 상태의 묘사는 멜로드라마적 애정구도가 제공하는 흥미 못지않은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대중적인 학병 로망이 전쟁 자체나 전쟁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전쟁으로부터 끝없이 도피하려는 자의 도주선을 타고 흐르면서 탈주자를 전면화하는 것은 의도된 선택인 것이다. 그런데 서사전략적 차원의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탈주 학병이 갖는 보다 넓은 상징적(혹은 정치적) 의미일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동원된 학병들이 자신의 사적, 공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전시 제국의 막강한 경찰권을 거스르는 탈주 밖에는 없다는 인식이다. 학병탈출 수기와 대중적 학병 로망은 이러한 의식을 공유한다. 탈주 학병이 병영과 전장에서 직면한 곤란이나 불만이나 절망이 무엇이든간에, 전시 제국의 병영시스템내에서 그 조밀하고 집요한 범망을 뚫는 ‘도망병’은 총력전의 통치 장치와 피식민 생명체의 접합장에서 생겨난 주체성인 것이었다.

그러니까 도망병 혹은 병영 이탈자란, 병사화 권역에 들지 않았던 지금까지의 조선에서는 생성될 수 없었던 존재 그런데 전쟁의 미시정치와 더불어 비로소 등장하게 된 신생 존재이다. 이들은 막강한 전시 통치 장치의 필연적 부산물인 동시에 체제로서는 예기치 못한 불상사이기도 한 셈이다. 아감

48) 한운사, 『아로운2-현해탄은 말이 없다』, 정음사, 1985, 45쪽.

벤은 푸코의 논의에 기대어 “생명체들의 몸짓, 행동, 의견, 담론을 포획, 지도, 규정, 차단, 주조, 제어, 보장하는 능력을 지닌 모든 것”을 장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실체들(생명체)과 장치를 분할하여 이 둘 사이에서 제 3항인 주체가 생겨나는 구도를 상정한다. 그리고 장치의 무한한 증가와 바로 그 만큼의 주체화 과정의 증식을 대응시키고 있다.⁴⁹⁾ 이에 따르자면 범장치가 ‘적법자’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범법자 역시 파생시키며, 같은 논리로 사회의 총체적 병영화 장치가 그만큼의 반병영적 범죄를 자극할 것이라는 이해가 가능할 듯하다. 많은 수기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바이지만, 학병제 시행을 전후하여 전문·대학생은 도망이건 ‘정상적’ 귀향이건 거의 모든 이동의 경로 곳곳에서 미시적으로 작동하는 제국 경찰력의 철저한 감시를 받았으며, 결국에는 입영 지원서를 작성할 때까지 그러했다. 경찰이 징병 수행의 중핵적 책임 기관으로 병영화의 실제적인 실행 주체였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일상적이고 집요한 포획정책의 생리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⁵⁰⁾ 그리고 조밀한 경찰력의 그물에 걸린 후에라도 이들이 배치하고 할당해준 자리에 고정되기를 거부하고 흘러다니는 도망자들, 질서와 체계를 흐트러뜨리는 탈출자들은 치안유지법을 어긴 중대 범법자들로 또다시 헌병의 감시와 수색의 대상이 되곤 했다.⁵¹⁾

이렇게 보면 군법을 어기고 도망을 감행한 두 인물 즉 도시를 배회하는 유령 아로운과 비록 실패했지만 계속 도주를 시도했던 백영민은 전시 제국의 강압적인 치안적 분배 질서를 어긴 자들이다. 일반적으로 학병수기에 탈출이나 도망을 감행한 학병이 그렇지 않은 학병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식의 비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탈출자들은 탈출 결정의 이유를 민족적 울분과 저항에서 찾고 또 출정자들은 출정의 불가피성과 비극성을 역설하는 방식으로 나름의 자기 운명을 설명해주는 기제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 두

49) 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양창렬 역, 난장, 2010, 1장. 인용은 33-34쪽.

50) 이에 대해서는 樋口雄一, 앞의 책 참고.

51) 1945년 6월 평양사단 내에서 발생한 조선인 학병의 탈주 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관련자 24명이 징역 2년에서 13년에 이르는 형량을 언도받았는데 이들의 죄목은 공통적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이다. 이에 대해서는 표영수, 「‘평양학병의 거사건’ 판결문」.

행위 사이에 가치론적 무게를 재는 태도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중적 제현의 생산과 소비의 장에서, 또렷하게 돌출되어 있는 뚜렷한 ‘범법행위’가 위함을 무릅쓴 민족주의적 열정과 반제국주의적 결단의 표현물로 선호되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탈출이 여러 층위(개인, 가정, 민족, 국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질문 즉 ‘내가 왜 전쟁에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상의 윤리적 답으로 인식되는 맥락에서, 탈출을 수행하는 학병은 전쟁에 휩쓸린 식민지 청년의 절박한 모험, 숭고한 정신, 맑은 영혼, 고매한 고뇌를 합쳐서 안고 있는 (보다 정확하게는, 그렇다고 상상되는) 단단한 매듭같은 것이었다.⁵²⁾

3-2. 범/법과 존재론적 전환의 기술

그렇다면, 총력전의 치안 논리에 반하는 범법 주체였던 두 청년이 보여주는 귀로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들은 제국을 배경으로 하여 주어진 법 혹은 자기 존재의 범법성을 어떤 식으로 의식하거나 처리할 수 있었는가. 좀 더 일반화해 보자면 이는 피식민자에게 법 또는 합법성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거나 의미화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될 것이다.

우선 『청춘극장』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전장에서 벗어나 후방으로 돌아온 후에 일어난 백영민의 자살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장대한 모험, 웅변적 사유와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는 사건이다. 두 지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법학도로서 범문계 학생을 겨냥한 징병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던 백영민은 부상병이 되어 조선으로 돌아온 후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한다. 이는 그가 제국법의 실제 운용을 담당하는 하나의 생활인이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곧 백영민은 식민지 출신의 젊은 범종사자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임에 말려든다. 사실상 이 게임은 전시 제국법과의 싸움으로 그 결

52) 일본인 학병들의 멘탈리티와 조선 학병들의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료 성격의 차이, 기록의 차이, 표본의 차이 등으로 인해 일률적인 비교는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 학병들이 다가오는 죽음 혹은 이미 결정된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의미를 묻고 찾기 위해 교양에 기반한 고도의 사유를 시도했음을 규명하는 오오누키 에미코의 『죽으려면 죽으리라』(이향철 역, 우물이 있는 집, 2007)의 관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흥미롭다. 더불어 역자인 이향철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와 같은 일본인 학병의 ‘정신자’가 불러일으키는 효과 역시 비판적으로 재고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말은 백영민의 패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게임은 그가 애국(애족)과 연애가 서로 일치하거나 부딪침으로써 열리는 복잡한 판단과 선택의 공간에 서게 되는 것으로 전개된다. 백영민은 이 둘이 쉽게 합일되지 않는 균열의 틈에 끼어 있다. 운옥의 사랑이 사적 사랑에서 공적 사랑으로 이어지고 확장되면서 강해지고 있는 데 비하면 백영민의 그것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흔들리고 소모되는 형국이다. 그 어느 것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백영민은 우선 제국법의 희생자가 되어버린 운옥을 구하고자 하지만 실패한다. 유일하게 남아 있던 방법 즉 제국법의 ‘공정성’에 기댄 호소는 “죄이상의 죄를 피고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서 대일본제국의 신성한 법의 정신을 망각하게 되는 중대결과를 맺을 것이오니 진실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해”⁵³⁾달라는 변호와 요구) 자기의 공정성과 공공성 자체를 정지시킴으로써 유지되는 제국법의 무법적 논리에 의해 철저히 무시된다.

이렇게 해서, “법률적 양심과 도덕적 양심의 조화”를 통해 조선과 조선인을 ‘법적 존재’로 상승시키고자 했던(“먼저 조선사람은 법률적 양심을 길러야만 될 줄 믿습니다. 즉 권리와 의무를 구별할 줄 이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⁵⁴⁾ 식민지 출신의 이상주의적 법학도는 현실의 법운영 장에서 제국법의 본질적인 기만을 목격하고 자기를 지탱하던 공적이자 사적인 존재론적 근거 전체를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사태가, 치열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운옥을 구하지 못하고 바로 이로 인해 유경도 잃어버리는 일련의 사건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청춘극장』은 식민지의 순수하고 우등하며 영롱했던 젊은 영혼이 제국의 전시 통치장치의 법망을 거스르는 범법자로, 다시 포획된 전쟁 병기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상실한 자살자로 소멸되어 가는 과정을 재현하면서 눈물과 애상으로 식민지 역사를 구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제국의 전시(치안)법을 불신(거부=범법)하면서도 보다 근원적으로는 제국법의 권위를 신뢰했던 젊은 계몽주의자의 자가당착이 백영민

53) 『청춘극장』3, 333쪽. 이는 조국에 대한 사랑과 사적 사랑 가운데 전자를 택한 일본인 스파이 하세가와 나미에의 위증을 비판하는 운옥의 논리이기도 했다. 운옥은 법정에서 “적어도 거룩하신 분의 분부로서 제정된 대일본제국의 입법의 정신을 유린한 범죄인으로서” 위증자 하세가와 나미에를 공격한다.

54) 『청춘극장』1, 44쪽.

의 자살을 설명해주는 기본 구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⁵⁵⁾

그는 법과 폭력이 인접성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 폭력이 법질서에 외재적이지 않다는 사실⁵⁶⁾ 그리고 그를 징병해갔던 전시 총동원법과 치안법이 결코 제국법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스스로 설정하여 기대한 제국법의 ‘선’(정당성)과 역시 스스로 어기고 거부한 ‘악’(부당성=억압성)을 양 손에 든 채, 결과적으로는 그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진된 것이다. 식민지인에게 어떤 선택이 있을까? 제국의 법망에서 안태하는 것 혹은 여기에서 멀리 이탈하는 것,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채로 헤어나지 못하는 것. 어느 경우든 절망적인 뿐이지만, 백영민의 경우는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삶의 상태(=죽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다. 어쨌든 이 눈물과 애상의 힘이 식민지 역사를 향한 대중들의 기억과 감각에 오래도록 영향미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청춘극장』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적멸해가는 젊은 에너지가 신생하는 젊은 에너지(운우-장일수) 못지 않은 감정적 울림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의 방향으로 식민지를 기억하고 민족을 애도하는 방식이 하나의 뚜렷한 길을 텃다는 것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아로운』에서 아로운이 선택하는 자기-기술 즉 궁극적인 합법성의 획득 양상을 검토해 보자. 그 ‘성취’의 논리와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의 사랑과 귀환의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위험하고도 용감한 민족주의적 모험과 사적 사랑의 행로를 구도적으로, 의미론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중적 학병로망이 구축되는 공통된 방식이다. 이는 민족애와 연애 없이는 상상될 수 없는 식민지 청년의 상이 탄생하는 공식이기도 하다. 『청춘극장』의 핵심에 백영민-유경-운우의 관계가 있듯이 『아로운』 3부작에는 아로운과 일본여성 히데코의 관계가 있다. 두 인물 사이의 헌신적 애정은 일반적인 멜로드라마의 복잡하게 얽히고 어긋나는 관계와는 달리 확고한 불변성을 바탕으로 한다. 물론 바로 이 변치않는 애정의 유일성으로 인해 탈

55) 해석과 관점은 다르지만, 『청춘극장』에서 다루어지는 법의 문제를 의미화하면서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이호걸, 앞의 글.

56) 법과 폭력의 인접성은 조르조 아감벤, 『목적없는 수단』, 김상운 외 역, 난장, 2009, 특히 9절 『주권적 경찰』 참고 그리고 법과 폭력의 내재적 관계에 대해서는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2004 참고

주 학병이 치러야 할 모험의 고통과 위험은 더 증가하는 것이며 대중물로서의 극적 효과도 발전(發電)할 수 있는 것이다. 『아로운』 시리즈 역시 『청춘극장』이 선취한 민족주의적 멜로드라마의 틀을 활용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상상력에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청춘극장』을 이끄는 모든 당위적 이념(애족, 독립, 저항), 가치있는 감정(애정, 우정)이 철저히 동족성에 기반하여 성숙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확인된다. 애초 이러한 틀 안에 놓여 있는 까닭에 백영민은 어떤 일본 여성과도 친밀성의 관계를 갖지 못한다. 말하자면 이러한 유형의 관계란 『청춘극장』의 지평에서는 상상불가능 혹은 상상불필요한 것이다.

동족성에 기반한 친밀성이라는 전제는 민족주의적 상상력이 운동하는 안정적인 기반이 되어 왔다. 그런데 『아로운』은 해방 이후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이러한 기본적인 자기 구성 방식에 작지 않은 변수를 가지고 들어온다. 나아가 이 작품을 계기로 1960년대 초반부터 한일간 국가 경계와 에스닉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혹은 우정)의 서사가 특히 영화를 중심으로 한 대중물 영역에 출현하여 뚜렷한 경향성을 이루게 된다.⁵⁷⁾ 젊은 식민지 남성과 지배 국가 여성 사이의 정서적 연대가 진취적이며 미래지향적이고 갈등해소적인 것으로, 즉 내선일체라는 공적 가치의 사적 실천으로 묘사된 것은 주로 식민지 말기의 작품들을 통해서였다. 이후 조선(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감정적 연대라는 모티프는 담론의 지평에서나 재현의 관습장에서 모두 사라진다. 그 가능성이 과거와는 모습을 달리하여 가시화된 것이 바로 1960년대 초반부터이며 이런 현상이 부상할 수 있었던 데는 당시 한일 관계를 두고 진행된 전면적인 정치적·문화적 변화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1960년대 초의 상황에서 진행된 식민지 역사 재구성 작업에 이 변화가 사랑과 연애 대상의 전환으로 반영된 현상에는 나름의 맥락이 있는 것이다. “한 국민이기 전에 우선 한 인간임을 훌륭히 보여준 일본인의 몇몇을 적으로 돌릴 수야 없는 일”이며 “오랫동안 한일 양국간에 개재하였던, 불필요하고 유해로운 적의가 조속한 시일 내에 풀어지는 것”을 “5.16 군사혁명”을 통해 기대하게 되었다는 인식 속에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학병 로망 『아로운』이 나온 것이다.

57) 이에 대해서는 김예림, 앞의 글 참고

나고야의 군부대에서 갖은 차별과 모욕을 당하다가 부대를 이탈한 아로운 히데코와 도피생활을 함께한다. 극심한 생활난과 발각의 위험 그리고 계속되는 도시폭격 속에서 아로운은 자기 정체성의 비참함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임신한 히데코가 식량을 구하러 외출을 하면 아로운은 은닉처의 작은 방에 갇힌 채 끝없는 전략의 공포에 시달린다. “긴 한숨을 쉬고선 골목길을 내려다보았다. 완연히 어두워졌다. 그리고 안온다. 어쩌면 안돌아올 작정인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녀가 제대로 생긴 일본여자라면 돌아오지 않을 이유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을 게다. 첫째 조오센징, 둘째 도망병,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가둬 놓아야 되고 벌어다가 먹여 살려야 되고 전쟁에 저서 일본이 망하게 되기 전에는 맥을 쓸 도리가 없는 사나이”.⁵⁸⁾ 조선인 도망병 아로운은 전란 속에서 히데코와 헤어지고, 그녀를 찾아 헤매다가 부상을 입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후송된다. 제국의 치안망은 조밀하고 철저하여, 그는 도망죄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추궁받기 위해 결코 죽어서는 안되는, 완전히 포획된 생명의 역설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 이국에서의 청년 수난사는 조국으로의 귀환이 의미하는 정상 질서로의 회귀라는 상승과 에로스의 경로를 취하면서 종결된다. 아로운이 수행한 탈출이라는 ‘민족주의적’ 삶은 제국의 시절에는 혹은 제국의 땅에서는 ‘불법’으로 도착(倒錯)된다. 하지만, 해방을 통해 이제 그는 고국 땅에서 ‘국민’이라는 적법하고 합법적인 존재로 갱생하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귀환을 결정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사적 사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한다. “조국이나, 사랑이나? 여태까지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문제같기도 하고 아니 정반대로 여태까지 생각하고 겪어온 모든 일의 종말은 필경 이 크고 작은 것 같은 두가지 중에서 어느 한쪽을 택하느냐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사랑을 보존하고 동시에 조국을 따를 수 있는 편리한 길은 없는 것일까? (……) 사랑과 동시에 조국을 찾는 길은 없는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키는 길은 없는가”.⁵⁹⁾ 『청춘극장』의 백영민이 두 가지를 모두 획득하지 못했다면, 아로운은 히데코를 일본에 두고 귀환선을 타는 것

58) 『아로운2-현해탄은 말이 없다』, 정음사, 1985, 16쪽.

59) 위의 책, 113-114쪽.

으로 큰 하나=조국(민족)을 얻는다. 방황과 번민 속에서 아로운이 조국으로 향할 것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히데코의 자발적 이별의 결심이다. 그녀는 “조선 출신의 당신의 경우 짓밟힌 꿈과 그 꿈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정열을 식힐 수 없을 바엔, 차라리 행복을 독점하는 데서 얻으려 하는 것보다도 당신의 정열이 식을 때마다 거기 불을 붙여주는 충실한 시녀가 되는 데서 얻고자 결심했다”⁶⁰⁾고 하면서 아이와 함께 나고야에 남는다.

이렇게 하여 『아로운』은 귀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데, 이는 곧 도망자-되기에서 국민-되기로 이어지는 식민지 엘리트 청년의 전형적인 존재전환의 서사라 할 수 있다. 존재의 전환이란 무엇인가? 제국의 한가운데서 법질서를 어기고 이탈한 이등 종족이 자기 영토에서 국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대로 살아 나간다면 나는 이 세상의 뒷골목에서 뒷골목으로만 헤엄치고 다녀야만 돼. 무엇을 하겠느냐는 명약관화한 일. 사기 아니면 도둑, 아니면 사람으로 봐지도 않을 고생의 노예가 될 뿐”⁶¹⁾이라고 아로운이 깊이 절망하기도 했듯이, 제국의 영토에서 그 법을 거스르며 산다는 것은 법에 압착당함으로써 철저하게 외부화되면서-속박되는 지하의 수인(囚人)을 연상시킨다. 반대로 국민이 된다는 것은 주권적 공동체의 성원이 되어 ‘정당한’ 정치적 지위와 인격을 갖는다는 뜻이며 공적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국가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폐물들=“예외적 존재” 같은 것으로 전략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렌트가 말한 “인정받지 못하는 예외”(난민)이거나 기껏해야 “인정받는 예외”(범죄자가 된 난민)일뿐인 존재 혹은 이국에 잔류하면서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소수민족으로 부유할 뿐인 존재를 생각해 보자.⁶²⁾ 이러한 삶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 일본을 떠돌던 조선인 도망병의 삶의 복구는 그러므로 (형식)논리상으로는 주권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상상된 것이다. 아로운의 귀환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휘된 자기기술이라 할 수 있다.

60) 『아로운3-승자와 패자』, 위와 동일, 257쪽.

61) 『아로운2-현해탄은 말이 없다』, 위와 동일, 228쪽.

62)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역, 한길사, 2006. 인용은 518쪽, 세 일라 벤하버브, 『타자의 권리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현실사, 2008. 인용은 81쪽 참고.

4. 결론: 생략과 단절의 기억술

식민지가 있고 전쟁이 있으며, 전쟁의 병기로 전락한 아픈 슬픈 식민지 청년이 있다. 이 서사가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문화상품과 문화적 감수성을 특징짓는 하나의 중요한 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민지 청년을 양각하는 작업은 당대 청년을 그리는 여타의 작품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일, 즉 다소 ‘고전적인’ 색깔을 섞어 역사를 향한 노스텔지어를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다.⁶³⁾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학병의 대중적 재현에 어떤 생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생략된 부분은 바로 귀환 후의 상황 즉 해방기 정국에서 전개된 학병(출신자)들의 동요의 상황이다. 이는 앞에서 다룬 두 학병 로망에만 해당하는 특징은 아니며 대부분의 학병수기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양적, 질적 측면에서 이들의 회고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1.20 학병사기』에는 귀국 후의 기억을 따로 모아놓은 절이 있는데, 이 기억들은 “귀국과 애국봉사”라는 타이틀로 환원되고 있다. 어찌보면 학병을 둘러싼 공통의 기억이란 식민지 시기의 수난, 해방의 환희, 귀환의 감격, 국민으로서의 헌신, 대략 이 근방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시기가 어떠한 남한에서 출간된 학병수기들이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성은 시

63) 일본의 경우, 무명 장병의 전쟁체험기가 유행한 것은 1950년대 중반부터이다. 병영생활을 다루는 이등병 이야기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소설, 영화 등이 나오는데, 이러한 텍스트들은 전쟁과 전사의 가혹한 기억들을 매우 친밀한 기억으로 전환시키고 대중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에 대해서는 中村秀之, 「<二等兵>を表象する」, 『冷戦体制と資本の文化』, 岩波書店, 2002. 한편 오구마 에이지는 학도병 체험이 일본의 전후 사상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이들이 군대 생활에서 얻게 된 대중에 대한 반감과 비과학적이고 부패한 일본군대에 대한 혐오감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의 지적 서열을 완전히 무시하는 병영내 서열 체계를 지식인 집단이 엄청난 물리적·상징적 폭력으로 받아들인 것은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2 참고. 한국의 학병 수기들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언급한 글들을 보면, 조선인 학병이 느끼고 체험한 ‘신분전락’이나 성층적·역전은 일반적으로 <일본인:조선인>이라는 에스닉 경계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 의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완화와 풍화라는 맥락 말고도, 해방 이래 지속되어 온 분단과 냉전체제라는 문맥에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자임하면서 돌아온 학병들이 착목한 당시의 국가적 환경이란 것은, 이들이 좌우 어느 쪽에 서있든 피차 만족스럽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였다. 서로에게 문제적인 이 상황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복원 학병들은 돌아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통치권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의 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국가 형성과 권력 장악의 역학에서 핵심은 국가의 존재와 운용에 필수적인 치안(police)의 권한 즉 국가 구성원을 수궁·복속시킴으로써 이들 전체를 관리하고 통어하는 권한을 누가 전유할 것인가이다⁶⁴). 형성기의 국가로 돌아온 학병들은 채 확정되지 않은 치안 권한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복수의 세력들 중 중요한 하나가 되었고, 학병조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학병동맹이 짧지만 실제적인 권한을 잠시 소유했었다. 이들은 ‘인민의 것’이어야 할 국가가 ‘친일파, 민족반역자’ 세력에 의해 ‘횡령’당하는 사태를 막고자 했으며, 국가정초적 활동의 하나로 자발적이고 신속한 조직화를 통해 치안 공동(空洞) 상황의 조선을 질서화하려 했다. 말하자면 이들의 치안은 상위의 미군정-친일 연합 세력의 치안과는 다른, 사설적(私設的)이고 대안적인 성격의 것이었다.⁶⁵) 물론 이 학병동맹이 수행한 치안은 군경경찰력에 의해 완전히 와해되었고, 관련 학병들은 또다시 ‘불법적’ 존재 혹은 ‘범법적’ 존재가 되어 버렸다.⁶⁶) 이 일련의 사태는 제국의 치안 장치에 포획되었던 청년 집단이 국

64) 국가와 안전 그리고 치안에 관해서는 마벨 베레진, *안전국가:감정의 정치사회학을 향하여*, 책 바버렛 편저,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역, 이학사, 2009;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edited by Michel Senellart, Palgrave Macmillan, 2007 특히 11~12절.

65) 학병동맹의 강령은 1.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驅逐)하여 민족해방의 완성을 기할 것 2. 신조선건설의 추진력이 될 것, 3. 신조선 문화운동에 진력할 것, 4. 현과도기에 있어서 치안유지에 협력하고 장차 국군건설에 노력할 것, 이렇게 네가지다. 강령 4가 명시하고 있듯이 학병동맹은 조선 국군준비대와 더불어 자생적인 군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했었다.

66) 해방기 경찰 및 군대를 비롯한 억압적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안 진, 앞의 책; 학병동맹 사건에 대한 해석으로는 이혜령, 앞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가의 폭력적 치안 장치에 의해 새롭게 유린되는 장면을 보여준다.

해방기 특유의 비결정성과 유동성이 분단 국가의 탄생과 공고화에 따라 어느 한편으로 고정되어 가면서, 학병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념적·공간적 거처를 선택했어야 할 것이다. 또 자기들을 합법적 존재로 받아들여주는 체제에서 애국적이고 선도적인 엘리트 국민으로 복무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은 차차 기성(既成)이 되어갔다. 어쨌든 해방기 무수한 작품들이 갖는 특유의 현장성과 시사성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귀환 학병의 복잡한 삶의 풍경이 그리 충분히 포착되지는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이후에도 격렬하게 기억되지 않았다는 점은 역사의 다층적 기억과 중층적 복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볼 때 문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대중적 학병로망의 단절적 기억과는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는 『관부연락선』과 『불꽃』 등을 재독하는 작업이 남았다. 이 텍스트들은 식민지 시기를 거쳐 냉전의 들판에 도달한 학병의 삶의 상태가 역시 냉전을 살아온 소설·기록자들에 의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이다. 대중적인 학병로망과는 계열을 달리하는 이 경우들은 차후에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청춘극장』1~3(김내성, 흥진출판사, 1975),
『아로운전』1~3(한운사, 정음사, 1985),
『1945년 8.15』(『자유신문』),
『청년운동의 大本』(정해준, 한성출판사, 1949)
『청춘만장』(1.20동지회, 1972),
『1.20 학병사기』1~3(1.20동지회, 1989),
『7인의 탈출』(유재영, 삼지원, 1993),
『탈출기』(김문택, 1995, 한국독립운동사정보시스템)
『해방기 한국문예자료총서』(계명문화사, 1990), 『백민』, 『학병』, 『자유신문』
방송대본디지털도서관 <http://www.daevon.or.kr>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 <http://oralhistory.knaa.or.kr>

2. 논문과 단행본

-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책세상, 2005.
권미현,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기록학연구』16호, 2007, 303-339쪽.
김광열 외, 『패전 전후 일본의 마이너리티와 냉전』, 제이앤씨, 2006.
김윤식, 『일제 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7.
김예림, 「불안전국가의 문화정치와 포스트콜로니얼 문화상품의 장」, 『현대문학의 연구』, 2010, 563-608쪽.
김예림, 「전쟁 스펙터클과 전장 실감의 동력학」, 『동방학지』147집, 2009, 165-205쪽.
백문임, 「“군인이 되세요”」, 『동방학지』147집, 2009, 207-242쪽.
벤 싱어, 『멜로드라마와 모더니티』, 이위정 역, 문학동네, 2009.
선우기성, 『한국청년운동사』, 선문사, 1973.
세일러 벤하비브, 『타자의 권라 외국인, 거류민 그리고 시민』, 철학과현실사, 2008.
신주백, 「한국과 일본에서 대일과거청산운동의 역사」, 『역사문제연구』14, 2005, 135-173쪽.
안 진,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2005.
오오누키 에미코 『죽으라면 죽으리라』, 이향철 역, 우물이 있는 집, 2007.
이경숙, 「한운사의 “아로운3부작”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3, 2006, 381-406쪽.
이영미, 「추리와 연애, 과학과 윤리」, 『대중서사연구』21, 2009, 7-50쪽.
이호걸, 「김내성의 <청춘극장>과 한국액션영화」, 『대중서사연구』21, 2009, 157-202쪽.

- 이혜령, 「해방(기): 총 든 청년의 나날들」, 『상허학보』27, 2009, 9-50쪽.
- 자크 데리다, 『법의 힘』, 진태원 역, 문학과지성사, 2004.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양창렬 역, 길, 2008.
- 장 신, 「『朝鮮檢察要報』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 말기(1943~45)의 조선사회」, 『역사문제 연구』, 2001, 235-259쪽.
- 정운현 편,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 1997.
- 조르조 아감벤, 『목적없는 수단』, 김상운 외 역, 난장, 2009.
- 조르조 아감벤, 『장치란 무엇인가?』, 양창렬 역, 난장, 2010.
- 최영욱, 「해방이후 학병 서사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 최지현, 「학병의 기억과 국가」, 『한국문학연구』32, 2007, 459~486쪽.
- 칼 슈미트, 『정치적인 것의 개념』, 김효진 역, 법문사, 1995.
- 표영수, 「평양학병의거사건 판결문」, 『한일민족문제연구』, Vol.1 247-266쪽.
-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1, 이진우 역, 한길사, 2006.
- 황종연, 「조선 청년 엘리트의 황국신민 아이덴티티 수행」, 한일 연대21 편, 『한일 역사인식 논쟁의 메타히스토리』, 뿌리와이파리, 2008.
- 中村秀之, 「<二等兵>を表象する」, 『冷戦体制と資本の文化』, 岩波書店, 2002, 133-168쪽
- 小熊英二, 『‘民主’と‘愛国’』, 新曜社, 2002.
- 樋口雄一, 『戦時下朝鮮の民衆と徴兵』, 総和社, 2001.
- Michel Foucault,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7~78*, edited by Michel Senellart, Palgrave Macmillan, 2007.

Abstract

Police, Violation of the Law, Desertion and The Context of These Situations

- *Theatre of Youth* and *Trilogy of Ah Ro-woon* as Student Soldier Roman -

Kim, Ye-Rim

This paper explores the state of lives of Chosun's youth under Japanese imperialistic rule during the Second World War. The specific analysis focuses on student soldiers, which are identities appeared in conjunction with biopolitics of military empire. Additionally, I intended a close examination of how their stories were recorded and consumed after the liberation. The student soldiers who were forcibly taken to a war waged by the colonizers belonged to different social stratum than that of the volunteer soldiers of mid-low-class backgrounds who appeared after 1938. The reason these student soldiers, the beneficiaries of higher education, were able to locate their positions within the horizon of national suffering and the building of a nation-state, while leaving records regarding the war and nation, is attributed to their high level of literacy. In this social and cultural context, student soldiers became a symbol of the nation's depression and delight.

The imagination of popular student soldier roman shared the same framework, influencing the post-colonial collective memory and the formation of popular sensitivity. Kim Nae-Seong's *Youth Theatre* and Han Woon-Sa's *Trilogy of Ah Ro-woon* are representative of popular roman portraying student soldiers. Through these works, the ontology of the young colonial elite is located as a major content of post colonial cultural products and was consumed on a large scale. Both texts employ the motif of 'desertion' as the main narrative plot. Desertion is a violation of the law which break the law-order and police system of the empire during a time of war. Analyzing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law and violations of the law that appear in these two works, this following thesis seeks to examine the historical and symbolic meaning of an empire's governance and the agency who is trying to escape from the power of an empire.(Key words :

the youth of colonized period, student soldier, student soldier roman, Youth Theatre, Trilogy of Ah Ro-woon, law-order, violation of the law, runaway soldier, desertion)

위 논문은 2010년 10월 23일 제35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기획논문으로 발표되었
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